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 120분

학 교 명		전형유형	논술
학년 (반)		성 명	

■ 일반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 배점은 [문항1]이 60점, [문항2]가 40점입니다.
2. 답안을 구상할 때 문제지의 여백이나 문제지 내의 연습장을 사용하십시오.
3. 답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 사용하십시오(연필, 샤프 사용 가능, 사인펜 불가).
4. 답안을 정정할 때 원고지 사용법에 따르십시오(수정액, 수정 테이프, 지우개 사용 가능).
5. 답안은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란에 작성하고, 답란 밖에는 작성하지 마시오.

※ 답안지는 절대 교체할 수 없습니다.

■ 답안 작성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오.
2. 제시된 분량을 지키시오.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마시오.
4. 논술문의 형식에서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쓰시오.
5. 수험번호, 성명 등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란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드러내지 마시오.



논술고사(인문계열)

■ 문항 1 [60점]

[논제] 인간과 자연에 관한 <다음>의 두 견해 중 한쪽을 택해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1,000±100자, 60점)

< 다 음 >

자연보호 우선

자연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되어야 한다.

인간편익 우선

인간의 편익을 위해 개발을 해야 한다.

< 조 건 >

1. 서론과 결론은 쓰지 말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할 것.
2. 둘 중에 하나만 택하여 자신의 선택을 첫 문장에서 밝히고, 그 선택을 정당화하는 논거 두 가지를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하되, 두 개 이상의 제시문을 활용할 것.
3.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쓰고 이를 재반박할 것. 재반박은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아도 됨.
4.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 제시문 >

(가) 인간은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다. 인간은 때로 자연의 힘 앞에서 미약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불굴의 의지를 통하여 자연의 힘을 극복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자연의 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되었고, 자연을 인간의 요구 충족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바라보는 ‘도구적 자연관’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도구적 자연관은 근대의 철학적 관점과 자연 과학의 발달로 더욱 강화되었다.

근대 철학이 지향하는 자연관에 따르면 자연은 인간에 의한 정복의 대상이며, 인간의 욕구와 편의를 위한 도구적 가치만을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계론적이고 환원론적인 자연관은 자연이 지닌 본래적 가치를 제거하고, 자연을 생명이 없는 입자로 간주함으로써 지배와 착취의 대상으로만 자연을 바라보게 하였다. 도구적 자연관처럼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연을 순전히 인간의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 평가하는 견해를 생태 윤리학에서는 인간 중심주의 윤리라고 한다. 인간 중심주의 윤리는 자연이 지닌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인간 상호 간의 윤리를 중시한다. 따라서 인간 중심주의 윤리는 이성적인 능력을 소유한 인간을 도덕의 주체로 규정하고,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만 간주한다. 한마디로 인간은 자연의 어떤 대상보다도 우월한 존재로서 자연을 지배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연을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 윤리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생태적 위기와 환경 문제의 주범으로 비판받고 있다.

다음의 우화는 인간이 자연을 단순한 도구처럼 이용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재앙에 대한 경고로 읽힐 수 있다. 한 원숭이가 한번은 밤에 삼나무 숲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그것이 밝게 환해지는 것을 보고 몹시 기뻐했다. “형제들아 와서 보아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밤을 낮으로 바꾸고 있다!” 원숭이의 형제들이 와서 광채를 보고 경탄했다. 모두가 소리치기 시작했다. “한스 형 만세! 원숭이 한스는 후세에 남을 거야. 그가 이 지역을 계몽시켰으니.” 우리는 이 우화에서 숲에 불을 질러 일시적으로 숲을 밝게 만든 한스 원숭이와 그에게 찬사를 보내는 원숭이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자신도 과학의 힘으로 자연을 변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일시적인 혜택을 너무 과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지 모른다.

인간 중심주의 윤리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 주목받는 탈인간 중심주의 윤리는 인간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기를 고집하지 않는다. 이러한 탈인간 중심주의 윤리의 흐름은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로 확대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생태 중심주의이다.

생태 중심주의 윤리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한 구성원이며, 자연이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생태적 위기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간의 관계와 과정 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에는 심층 생태학의 관점도 포함되어 있다. 심층 생태학은 인간 중심주의에 근거한 생태학을 거부하고 자연의 다양성과 자연의 내재적 가치, 생명 중심의 평등주의 및 공생의 원칙을 지향한다. 이 관점은 “모든 유기체는 생명의 연결망 속에서 본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주장에 담겨 있다. 심층 생태학의 관점에 따르면, 하나의 존재는 개체적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며, 다른 존재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본질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사회』 활용

(나) 환경주의자들은 자연 환경이 인간의 삶의 터전임을 강조하면서 다분히 과격한 목소리로 자연보호를 주장한다. 특히 그들은 현대 사회의 발달된 기술을 매개로 하는 인위적 개발에 대한 경계심을 고조시킨다. 가능하지만 하다면 과학과 공학의 힘을 앞세운 자연 개발을 전부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것 같다. 자연 환경이 인간의 삶의 터전이라는 주장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환경주의자들은 이 주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자신들의 과격한 태도를 정당화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자연 환경이 인간의 삶의 터전이라는 주장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환경'은 '중심'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그 중심은 바로 우리, 즉 인간이다. 지구에서 몇 십만 광년 쯤 떨어진 어느 별에 지구와 유사한 동식물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별의 자연은 그 자체로 어떤 고유한 가치를 지닐 수 있겠지만, 그 자연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다. 그 별이 맑은 대기와 맑은 물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삶과는 사실상 아무 관련이 없다. 지구의 자연이 소중한 까닭은 그것이 우리, 즉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생명체는 그것을 둘러싼 환경을 변형시킨다.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명은 생명 활동을 통해 그것의 환경을 변화시킨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환경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자체를 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뒤집어 말하면,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선이라고 볼 까닭도 없다. 자연이 우리에게 가치를 지니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지 그 자체로서 소중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조건적인 '자연보호'는 한낱 낭만적인 구호일 뿐이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인간에게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그의 유명한 명제는 인간이 자연을 아는 만큼 잘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과학의 목적이 자연을 정복해 인간의 물질적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인간은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데카르트는 인간의 정신은 물질적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존엄한 것인 반면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자연은 의식 없는 단순한 물질 체계, 즉 기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 역시 과학의 목표가 인간을 자연의 주인으로 만드는 데 있다고 보았다. 위대한 두 사상가의 관점은 인간중심주의 윤리의 바탕이 되었고, 자연을 탐구하고 개발하는 근대 서양의 과학기술의 정신에 기여하였다.

과학과 기술은 이처럼 자연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더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려 하는 인간의 오랜 시도의 결과물이다. 일부 환경주의자들은 마치 과학기술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본성을 지닌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것은 빛나간 선전일 뿐이다. 물론 인간이 자연에 미친 영향 가운데는 현명하다고 할 수 없는 파괴적인 변형이나 변질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활동이 유발한 그러한 환경 위해(危害)를 정확히 평가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런 손상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거나 제어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 역시 과학기술의 힘을 가진 인간의 적극적인 활동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일 자연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인간의 이런 활동을 제한한다면, 본말이 뒤바뀐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활용

(다) 인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행되는 동물실험의 유효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이 있다. 동물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우선 그들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1967년 이래로 적어도 23%, 많게는 40% 정도 줄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동물실험이 줄어든 것이 반드시 윤리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동물실험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물실험을 거쳐 공급된 합법적인 의약품이 인간의 목

숨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만일 쥐가 이산화탄소 속에서 산다면 인간도 살 수 있다고 확정짓는 식의 착오적 동물실험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긍정된다면, 이러한 확신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은 비슷해 보이지만, 인간이 동물과 공유하는 질병은 1.16%에 불과하며, 동물과 인간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적지 않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물 실험은 동물과 인간이 유사하다는 비과학적 전제에 입각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동물도 인간과 같은 생명체이므로 생명체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무엇보다 동물이 인간과는 다르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동물들은 이성 능력이나 언어 능력은 없지만 동물 역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물에 대한 차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험동물을 윤리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률을 만들었고, 유럽 연합은 동물실험으로 통해 만든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시킨 바, 이는 동물에게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생명의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동물들이 자신의 권리를 직접 주장할 수 없더라도 동물들은 그 나름의 존엄한 생명의 권리를 지녔으며, 이는 마치 어린이나 혼수상태의 인간이 이해력과 선택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도덕적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다.

동물실험을 중단해야 하는 더욱 본질적인 이유를 인간 스스로 지켜야 할 덕목에서 찾는 경우도 있다.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자였던 칸트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도덕적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칸트에 의하면, 자연은 비록 무생물이지만 아름답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자 하는 성향은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감정은 도덕 자체는 아닐지라도 도덕성을 매우 증진하며, 적어도 도덕성에 대한 길을 예비하는 감성의 기분이라 할 수 있는데, 자연을 파괴하고자 하는 성향은 그러한 감정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기 때문이다. 감수성의 성향이란 심지어는 사용 가치에 대한 어떤 이익 관심과도 무관할지라도 아름다운 수정의 형상, 묘사하기 어려운 식물의 아름다움과 같은 어떤 것을 사랑하는 성향을 말한다. 동물은 비록 이성이 없을지라도 살아 있는 피조물임을 고려할 때, 동물을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훨씬 심각하게 거스르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것을 삼가야 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고통이라는 공유된 감정을 무디게 하며, 사람 간의 관계의 도덕성에 참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자연적인 소질을 약화시키고 점차 그 소질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국어Ⅱ』, 『생활과 윤리』 활용

(리) 우리는 개인으로서나 공동체로서나 종종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선택 중에는 운동화 끈을 일자형으로 꿰어 묶을 것인지 아니면 엑스자 모양으로 할 것인지처럼 어느 편이 객관적으로 더 좋은 선택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그때그때 마음대로 해도 좋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객관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가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사회가 도입하려는 새로운 제도나 법률에 대하여 고민할 때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토론한다.

자연 환경을 다루는 일도 사회의 중요한 생각거리다. 그래서 강의 물길을 막아 조절하는 댐을 건설하거나 바다를 매워 마련한 간척지에 대규모 산업시설을 만들려고 할 때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지식을 수렴하는 결정의 과정이 진행된다. 그런데 동일한 정보가 주어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선택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숱한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정하는 가치판단의 방식과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공리주의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데 합리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공리주의는 이른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입장이다. 풀어서 말하자면, 그것은 선택 가능한 대안들 가운데 결과적으로 어느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효용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계산함으로써 '옳음'과 '그름'을 판정하려는 입장이다.

야생 코끼리가 도시에 나타나 주민을 밟아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해보자. 그 경우 우리는 그 코끼리가 얼마나 희귀한 동물인지 같은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그것을 살상함으로써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할 것이다. 그것이 그 상황에 대한 옳은 대처 방식이다. 코끼리의 목숨이 아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다. 그렇게 살상하는 것이 사용 가능한 대안들 가운데 결과의 관점에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동물 실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동물 실험은 대개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하고 심지어 그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며, 그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태의 모든 결과를 고루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동물 실험은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실험을 대신하고, 그런 실험을 통해 인간의 난치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신약이 개발된다. 동물 실험을 금지한다면 그것은 동물 실험 덕분에 개발된 신약으로 구할 수 있었을 수많은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과 같다. 공리주의는 동물 실험이 왜 정당한지를 설명해준다.

공리주의는 도덕 판단 같은 가치 판단의 문제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를 비롯하여 사회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대규모의 공사가 계획되면 그것을 관할하는 정부나 지자체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런 공사를 해도 좋은지, 혹은 공사 계획을 어떻게 제한하거나 보완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이런 제도 역시 무엇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가늠해보려는 공리주의적 관점의 노력이다.

모든 생명체는 가치를 지니지만,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인간의 생명은 식물이나 동물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지만, 아주 특별한 일부분이다. 인간은 이성을 지닌 유일한 존재이고, 그런 점에서 다른 모든 생명체와 구별되는 가치를 지녔다. 다양한 생명의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라면,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생명을 우선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간은 숲을 갈아엎어서 경작지를 만들 수도 있고, 황무지였던 땅을 울창한 숲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의 능력과 더불어 판단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는 인간뿐이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일은 인간들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다. 그 일에 성공한다면, 사회 차원의 가치 판단에서 더 이상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없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사회』, 『한국지리』 활용

■ 문항 2 [40점]

[논제] 아래에 제시된 5개의 <자료> 중 적절한 것을 근거로 들어 <다음>의 ①~③에 대해 서술하시오. (700±100자, 40점)

< 다 음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 사회의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환경과 관련하여 단순히 쾌적한 환경보존 또는 오염방지 차원이 아닌,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대응책 수립이 국제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과 재생 및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국내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규제 요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① 총 CO₂ 배출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15 점)
- ② 발전 부문에서 2012 - 2014년에 CO₂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에너지원과 전기(2009 - 2011년) 대비 CO₂ 배출량 증가분이 가장 많은 에너지원이 동일한지 여부를 근거와 함께 밝히시오. (15 점)
- ③ 용도별 판매 부문에서 2012 - 2014년에 CO₂ 배출량이 가장 많은 용도와 전기(2009 - 2011년) 대비 CO₂ 배출량 증가분에 가장 많이 기여한 용도를 근거와 함께 밝히시오. (단, 용도별 판매 부문의 에너지원별 구성은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과 동일함.) (10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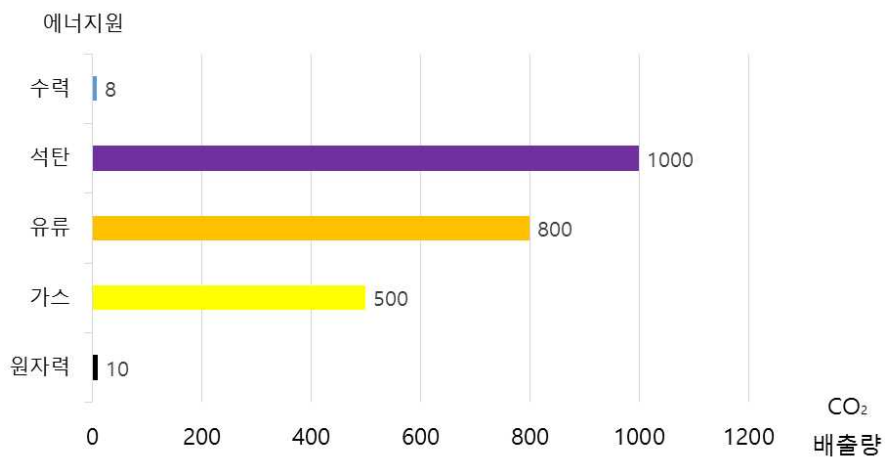
고등학교 『사회』 활용

※ 제시된 자료의 수치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 자 료 >

<자료 1> 에너지원별 1 GWh 당 CO₂ 배출량

(단위: ton-CO₂/GWh)



자료: 국제원자력기구(IAEA 2006, 평균값)

<자료 2> 에너지원별 발전 설비용량

(단위: MW, %)

연도	수력	석탄	유류	가스	원자력	기타	계
2009-2011	5,800 (7.6)	24,200 (31.8)	5,400 (7.1)	19,100 (25.1)	18,000 (23.6)	3,700 (4.9)	76,200 (100.0)
2012-2014	6,500 (7.4)	25,400 (29.1)	4,700 (5.4)	24,700 (28.3)	20,700 (23.7)	5,400 (6.2)	87,400 (100.0)
전기대비 증가분	700	1,200	-700	5,600	2,700	1,700	11,200

자료: 전력통계속보

주: 괄호 안은 전체 발전설비용량 중 에너지원별 비중임.

<자료 3> 에너지원별 발전 전력량

(단위: GWh,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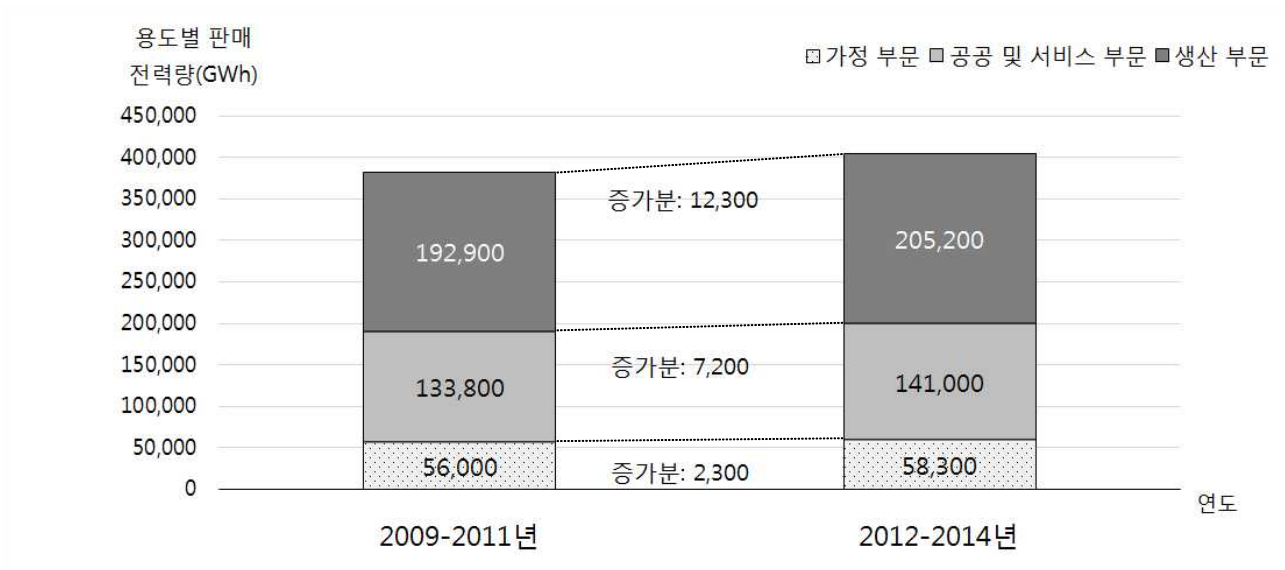
연도	수력	석탄	유류	가스	원자력	기타	계
2009-2011	6,600 (1.4)	197,100 (42.1)	13,200 (2.8)	87,900 (18.8)	150,400 (32.1)	13,200 (2.8)	468,400 (100.0)
2012-2014	8,000 (1.5)	200,900 (38.9)	18,600 (3.6)	118,800 (23.0)	148,500 (28.8)	21,400 (4.1)	516,200 (100.0)
전기대비 증가분	1,400	3,800	5,400	30,900	-1,900	8,200	47,800

자료: 전력통계속보

주: 괄호 안은 전체 발전 전력량 중 에너지원별 비중임.

<자료 4> 용도별 판매 전력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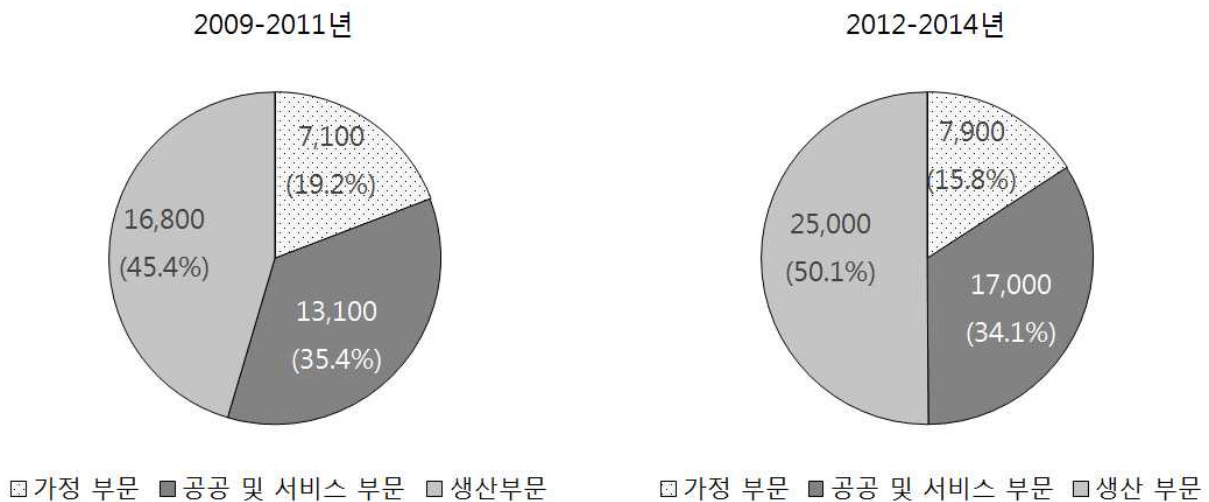
(단위: GWh)



자료: 전력통계속보

<자료 5> 용도별 판매 수입액

(단위: 십억 원, %)



자료: 전력통계속보

주: 괄호 안은 전체 판매수입액 중 용도별 비중임.

